

● 현대차 그룹 6개 계열사, 1585개 협력사와 국내 첫 동반성장협약 체결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자금, 품질기술, 교육분야 지원방안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은 3월 29일 롤링힐즈에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태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신달석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삼웅 기아자동차 사장, 정석수 현대모비스 부회장,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 임홍수 현대위아 사장, 이민호 현대로템 사장 등 6개 계열사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 대표 120명 등 약 2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 동반성장협약 체결

식'을 개최했다.

현대차 그룹은 2011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통해 부품 협력사들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자는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 6개 대표 계열사와 협력사 1,585개로서 새롭게 도입된 '동반성장협약' 체결로는 국내 최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정부 및 대·중소기업이 참여해 마련한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발표된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동반성장협약으로, 현대차 그룹은 2008년과 2010년의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발표했던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다.

현대차 그룹-협력사간 2011 동반성장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상생협약을 강화한 새로운 협약으로 △ 하도급 3대 가이드라인 지속 운영 및 강화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협력사 지속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경영 지원 활동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들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동반성장펀드 출연 등 대규모 자금 지원과 R&D 기술지원단, 품질학교,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 지원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경영 지원 활동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에 위해 기존 69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출연에 신규 동반성장펀드 출연, 협력사 운영자금 대여 등으로 1,046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총 1,736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으며, 협력사의 R&D 및 시설투자비 등으로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납품대금 현금결제, 녹색상생대출, 녹색브릿지론 등 다양한 자금 지원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운영해 협력사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그룹은 자금 지원 외에도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원을 위해 품질기술 육성 및 기술보호, 교육훈련, 2차 협력사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000여 개 2차 협력사를 방문해 품질관리 및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2차 협력사 품질 및 기술 현장지도', '게스트 엔지니어 제도', 'R&D 협력사 테크데이' 등 '신기술 전시회 및 세미나',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품질기술봉사단' 과 '협력업체지원단' 등 협력사의 기술 개발 및 보호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한다.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3,000여 개 1, 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50여 개 소그룹을 구성해 품질관리, 클레임 사례, 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업종별 소그룹 교육' 을,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도 협력사 품질관리 실무자 대상으로 품질 전문가를 양성하는 '품질학교' 를 신규로 운영한다.

2차 협력사 지원을 위해서는 '1차 협력사별 협력회 지원 시스템' 을 구성, 동반성장 관련 정책 및 정보를 안내해 1차와 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1,2차 협력사간 우수 동반성장사례를 발굴해 경영자문, 상주기술지도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포상을 실시하는 '1, 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포상' 등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주요 원자재를 대량 구매해 협력사에게 공급해 주는 '원자재 사급' 의 규모를 1조 3,850억 원까지 확대해 협력사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차 그룹은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력사들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이노텍, 금융지원 통해 동반성장 추진

핵심 부품 국산화 위한 동반성장 적극 추진



LG이노텍은 3월 11일 오후 서울 본사에서 협력회사와 직접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LG이노텍은 2011년 동반성장 첫 행보로 LG이노텍 허영호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과 뉴프렉스 등 협력회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을 위한 직접자금 지원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LG이노텍은 9개 협력회사에 3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사내 '동반성장 발전 위원회' 에서 협력회사 심의를 통해 각 사업부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9개 협력사를 선정했다.

이번 직접자금은 무이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이번 체결을 통해 LG이노텍은 각 협력업체에 △ 설비 투자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 동반진출 △ 첨단기술 개발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한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직접자금 지원은 지난해 LG이노텍이 발표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금융지원 부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LG이노텍은 협력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상생협력펀드 등 혼합지원 150억 원을 진행했다.

2011년에는 이번 36억 원의 지원금을 포함 45억 원의 직접자금 지원 및 100억 원의 네트워크론 등을 통한 직·간접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LG이노텍은 R&D, 자주연구회, 경영컨설팅, 역량교육 등의 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협력회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LG이노텍 허영호 사장은 참석한 대표들에게 "직접자금 지원이 단순한 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지원 내용을 충실히 실천하는데 사용되어 글로벌 소재·협력회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화, 클래식 선율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의 장 마련

김승연 회장, 협력회사 임직원 150명 초청해 음악회 함께 관람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협력회사 임직원 150명을 새봄맞이 교향악 축제에 초대했다.

김승연 회장은 4월 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한화가 전하는 희망의 봄 2011 교향악축제’에 한화그룹과 동반성장을 함께하고 있는 협력회사 임직원 150명을 초대했다.

초대된 협력회사 임직원과 동수로 김 회장을 비롯해 150명의 한화그룹 임직원도 함께해 동반성장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연을 관람했다.

금년 교향악축제에는 특별히 협력회사 임직원을 초청해 동반성장의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김 회장의 제안에 따라서 행사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협력회사의 대표 및 임직원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협력회사 임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는 등 동반성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다지며 동반성장의 믿음을 실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한화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단순한 사업관계를 넘어 한 가족처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00년부터 12년 동안 교향악 축제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는 등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예술의 전당 사장이 후원 10주년을 맞아 감사의 뜻으로 김 회장에게 종신 회원증을 전달하기도 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교향악축제는, 한화그룹이 후원을 시작한 지 12년째를 맞는 국내 최고의 클래식 음악축제로, 기업과 문화예술계간 오랜 파트너십으로 이룬 또 하나의 동반성장 사례다.

올해는 전국 18개 교향악단과 함께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중견연주자들로부터 젊고 실력 있는 차세대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협연자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KT, 2011년 '수요예보제' 시행

구매물량 감소·유지·증가 예상 품목 204개 협력사에 개별 제공

KT는 사업방향을 협력사와 공유함으로써 협력사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수요예보제'를 시행한다고 4월 6일 밝혔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2011년 수요예보제는 협력사, IT CEO 포럼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보 보고서'와 협력사들에게 KT 구매물품에 대한 향후 1~2년 구매물량 변동 추이를 제공하는 '구매물량 변동예보'로 구성되어 있다.

수요예보 보고서는 주요 메가 트렌드, 네트워크 진화방향뿐만 아니라 무선 서비스 분야, 유선 서비스 분야, 기업 서비스 분야 등의 사업계획 및 수요 규모를 시점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예보 보고서는 4월 6일부터 IT CEO 포럼 홈페이지 www.itceo.org를 통해 공지하고, 회원 중 신청자에 한해 개별 메일로 발송된다.

구매물량 변동예보는 2010년에 비해 정보의 공개내용 및 공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2010년 50개였던 예보품목은 KT가 기술요구서를 갖고 있는 277개 전체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예보범위도 물량 감소 폭만 예보했던 데서 나아가 감소, 유지, 증가 품목으로 확대했다.

2011년 구매물량 예보에 따르면 유지 23개 품목, 증가 38개 품목, 감소 216개 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IP 기반의 컨버전스가 가속화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프리미엄 AP, IPv6 주소 변환장치, LTE 등 차세대 통신장비는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KT는 구매물량 변동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9개 사업본부별 수요예측 조사결과와 변동 추이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자료를 작성했으며, 앞으로도 협력사 설문을 통해 수요예보에 대한 협력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개선점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태열 KT경제경영연구소장은 "KT와 함께 동반성장을 준비하는 협력사에게 예측 가능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수준을 최대한 확대했다"며 "협력사가 수요예보를 통해 KT와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KT의 동반성장 경영은 가시적인 사업성과 창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사적인 협업문화 향상을 위해 임직원 교육 및 윤리경영 강화, 구매제도 및 프로세스 개선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CP 도입' 선포

김기동 사장 "동반성장 위한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 노력할 것"



두산건설은 4월 6일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포식과 함께 1·2차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두산건설 김기동 사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경쟁정책국장,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김종선 회장, 두산건설 1·2차 협력사 대표, 두산건설 임직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CP 도입 선포식과 함께 실시된 1·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협약식은 1차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김기동 두산건설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두산건설은 동반성장을 위한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 이하 협력사까지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대표로 참석한 태원전기산업 양영희 대표는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이 1·2차 협력사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동반성장 지원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두산건설은 1차 협력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력사 정기등록, 평가시 가점부여 등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임원 대상으로 동반성장 교육

CP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

두산인프라코어는 3월 17일 인천공장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하도급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까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지만 임원으로까지 교육을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성 사장은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교육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전달해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는 경쟁력 강화 지원단 출범과 동반성장 강화 협의체 운영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3월 2일 두산그룹에서 평가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이행 실적에서 최우수 회사로 선정됐다.

10개 대형 건설사, 4005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현대·GS·대우·대림 등 참여·자금지원 3530억원



현대건설(주), GS건설(주), (주)대우건설, 대림산업(주), 롯데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SK건설(주), 두산건설(주), (주)한화건설, 동부건설(주) 등 10개 대형 건설사는 4월 1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4,005개 1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및 운용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됐다.

즉, 동반성장 펀드 조성 약 2,700억 원, 직접지원 약 830억 원, 네트워크론 운영 등 총 3,530억 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의 5~10% 상향(10개사) 및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100%(7개사) 개선, 그리고 신기술 공동 개발, 특허 및 신기술 공동 출원과 협력사 임직원 경영관리 교육, 재무·노무 사이버 교육 등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이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협력사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 반영, 위탁정보 통보 시스템 도입·운영, 협력사 원부자재 구매 대행, 협력사 손실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운용, 우수 협력회사 계약이행 보증료 면제 등의 다양한 지원도 뒤따르게 된다.

GS건설, '그레이트 파트너십 동반성장 협의회' 발족

동반성장 지원제도 및 정부동향 정보 공유·향후 동반성장 활성화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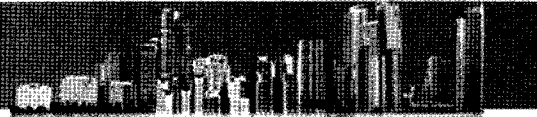
GS건설은 4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허명수 사장을 포함한 임원 5명과 우수협력업체 사장단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레이트 파트너십(Great Partnership) 동반성장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GS건설이 실시하고 있는 동반성장 지원제도 및 정부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동반성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GS건설의 동반성장 협의회는 협력회사와 상호이해 및 신뢰를 위해 주요 8개 공종 20개 협력회사를 선발해 발족됐다.

허명수 GS건설 사장은 "글로벌 건설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필수"라며 "지속적으로 협력회사와 소통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LG, 중소기업 차세대 기술 발굴 돕는 'R&D협력 동반성장'에 총력

1830억원 규모 자금 지원·연간 9조원 규모 거래대금 100% 현금결제 유지



LG는 4월 18일 서울 양재동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유플러스·LG CNS 등 6개 계열사와 협력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G-협력회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LG의 6개사 최고 경영진과 각 사별 협력회사 대표 1인이 협약서에 서명하며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운

찬 동반성장위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도 참석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협력 체결을 지원했다. LG에서는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허영호 LG이노텍 사장, 남영우 LG전자 경영혁신담당 사장, 김대훈 LG CNS 사장, 김종식 LG디스플레이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LG의 경쟁력은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한 공정거래질서에서 창출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LG는 정직, 공정, 정정당당한 경쟁을 기반으로 협력회사와 서로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동반성장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2차, 3차 협력회사들까지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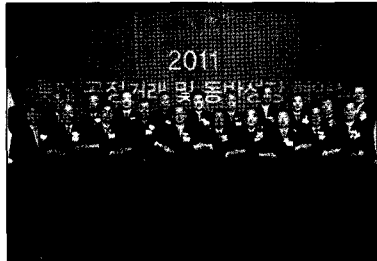
LG는 이번 협약을 통해 6개 계열사에서 1,165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R&D협력 동반성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 연간 9조 원 규모 거래대금 100% 현금결제 유지 △ 1,830억 원 규모 자금 지원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 교육훈련 지원 대상 2,3차 협력회사로 확대 등의 동반성장 정책 등을 실천기로 했다.

먼저 LG 6개사는 올해 1,83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대금 지급기일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협력회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LG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중인 협력회사 거래대금에 대한 100% 현금결제 실시를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올 한해 6개 계열사의 거래대금 규모는 총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G는 이 같은 대규모 거래대금 현금결제와 지급기일 단축 등이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LG는 협력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우수인력 확보와 교육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 LG의 인사를 활용해 협력회사가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혁신·품질·그린경영·리더십·어학 등의 분야에서 실시중인 협력회사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2,3차 협력회사 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G는 6개 계열사별로 기존에 운영 중인 동반성장 전담 조직을 확대하거나 개편해 협력회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구매담당 임원의 인사평가시 동반성장 추진실적 항목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롯데그룹 3개사, 2624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롯데쇼핑·롯데건설·호남석유화학 참여·2120억원의 자금 지원 및 협력사 해외진출 지원



롯데그룹은 4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롯데쇼핑, 호남석유화학, 롯데건설 등 롯데그룹 3개사와 2,624개 1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 510개사, 롯데마트 1,200개사, 롯데슈퍼 600개사), 호남석유화학 148개사, 롯데건설 166개사 등의 협력업체와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운용(롯데건설, 호남석유화학)과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롯데건설)이 그 근간을 이룬다. 롯데쇼핑은 공정한 유통거래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서면화 의무 △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 및 운용 △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배타적 전속거래 금지 △ 불공정한 거래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한다.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롯데건설을 결제조건을 현금성으로 100% 결제하고, 롯데쇼핑과 호남석유화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100% 현금을 지급기로 했다.

롯데동반성장펀드를 1,12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백화점 동반성장기금 1,000억 원 등 총 2,12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R&D, 교육훈련, 생산성 향상 등 동반성장투자를 위해 217억 원을 지원하며 △ 해외 108개 점포 네트워크를 활용해 2011년 7월부터 160개 협력사의 단계적 입점 실시 △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 반영 △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영 등의 다양한 경영지원도 추진하게 된다.

현대백화점, 협력사와 동반성장 '마진 인하할 것'

'인테리어 비용 2년 보상제' 실시하기로

현대백화점이 협력사 동반성장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현대백화점은 3월 24일 "우수 협력사의 마진을 1% 포인트 인하하고, 1,200여 협력사의 2011년도 마진 동결과 인테리어 비용 2년 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 최초로 국내 브랜드의 육성을 위해 국내 브랜드의 신규 문칭시 우선 입점 기회 부여 및 최초 2년간 거래를 보장하고, 경쟁 브랜드와 대비해 마진도 1~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상품구매자금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 협력사가 상품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저금리 네트워크론의 규모를 연간 1,200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같은 날 저녁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266개 협력사의 대표 부부를 초청해 뮤지컬 '광화문 연가'를 관람하는 'Success Together, 협력사 초청 문화 상생 컨벤션'을 개최하는 등 문화를 통한 협력사와의 상생도 이뤄나갈 계획이다.

7개 조선·기계 대기업, 5845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현대, 두산 등 참여·2000여억원의 자금 지원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 등 7개 조선 및 기계 대기업은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7개 조선·기계 대기업과 5,845개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한진중공업, (주)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업종 5개사와 두산중공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 등 기계업종 2개사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운영과 더불어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됐다. 동반성장 펀드 등 혼합지원 약 917억 원, 직접지원 약 943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 특별지원 약 66억 원 등 총 약 2,0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고, 7개사 모두는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100%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대금지급조건을 개선한다.

신기술 공동개발 및 공동 특허 출원,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등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과 함께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 반영, 원자재 일괄 구매 지원, 위탁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영, 동반성장 전담부서 운영 등의 경영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정보를 2차 협력사에게도 즉시 공개하는 등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도 운용하게 된다.

LS전선,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의회 발족

상생협력펀드·특허기술 이전·공동기술 개발·경영 혁신 등 다양한 지원



LS전선은 4월 19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손종호 사장과 주요 임직원, 35개 협력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LS의 새로운 경영철학인 'LS파트너십'에 기반을 두어 협력업체들과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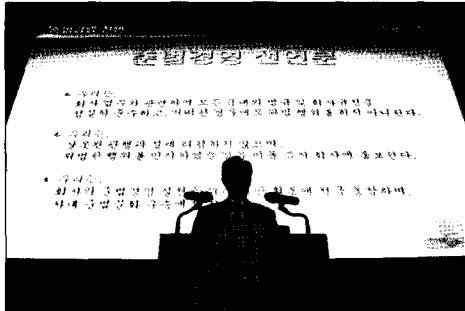
동반성장협의회는 △ LS전선과 협력사의 동반성장 방향 모색 △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등 공유 △ 사업 시너지 창출 방안 협의 △ 협력사 애로 및 개선사항 협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장은 신기전선 이병훈 회장이 맡게 되며, LS전선 측은 회원사들의 자체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LS전선은 상생협력펀드 조성, 협력회사 기술개발 지원, 특허출원 지원, 휴면 특허기술 이전, 대금지결제기일 단축 등 대금 지급 조건 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윤리경영·경영 혁신·6시그마 등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협력사와 실질적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삼성, '준법경영선포식' 개최

12개 계열사 '준법경영선포식' 개최·4월 마지막 주 '준법경영 선포 주간'으로 정해



삼성은 4월 마지막 주(25~29일)를 '준법경영 선포 주간'으로 정하고 '법의 날'인 4월 25일 12개 계열사가 '준법경영선포식'을 개최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준법경영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또한 향후 모든 계열사가 준법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날 선포식은 전자, 정밀소재, SDS, SMD, 토탈, 정밀화학, 물산(건설부문, 상사부문), 엔지니어링, 모직, 호텔, 에버랜드 등 삼성 12개 계열사별로 개최됐다.

이 날 행사는 계열사별로 △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영상 시청 △ 준법경영 선언문 낭독 △ 서약서 작성 △ CEO 당부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날 오전 수원사업장 디지털연구소에서 5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삼성전자 준법경영선포식'에서 최지성 부회장은 △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국내의 법규와 회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며 △ 잘못된 관행과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준법문화 구축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준법경영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최지성 부회장과 윤주화 사장(CFO)을 비롯한 각 사업부장들은 △ 제반 법규와 사내규정을 준수하고 △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 경쟁사와 불법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 이해관계자와 금전, 금품, 향응 등 위법한 수수행위를 하지 않으며 △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無寬容)원칙을 수용하고 법규 위반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준법실천 서약서를 작성했다.

최지성 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불공정 거래행위, 환경안전 기준 미준수, 각종 PL(Product Liability) 사고 등으로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고객의 신뢰까지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들은 경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삼성전자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준법경영선포식을 기점으로 앞으로 모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준법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삼성엔지니어링은 '준법 나무' 포스터를 만들어 대표이사, 컴플라이언스 위원, 노사협의회 대표 등이 임직원 앞에서 서명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삼성은 이미 준법경영 선포식을 개최한 SDI, 전기, LED, 중공업과 5월까지 선포식을 개최할 석유화학, BP화학, 제일기획, 에스원, 테크윈을 포함해 전 계열사가 준법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준법경영 체제를 가속화 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미 준법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해 각 계열사별로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성했으며, 올 상반기 안에 운영 규정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완비해 준법경영 기반을 구축 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임직원 교육과 지속적인 사



내점검을 통해 준법경영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컴플라이언스 평가·보상 체제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를 분석, 개선해 준법경영체제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 그룹은 4월 13일 삼성 서초빌딩에서 삼성 그룹 9개사와 1차 협력사 3,021개사 및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2,187개사 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선포식을 개최했다.

현재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SDS,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물산은 2011년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에 속해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및 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지원책이 마련된다.

동반성장 펀드 조성 및 직접지원 등 약 6,1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비롯해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 100% 유지 및 월 2회에서 월 3회로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개선, 특허권 제공과 특허 공동출원, 그리고 기술 이전 등의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이와 함께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 반영과 위탁 관련 정보 통보 시스템 운용,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등이 있다. 그리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간의 협약내용으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60일 이상 어음 결제 퇴출, 삼성으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 취지에 따라 2차 협력사에게도 지원 노력, 납품단가 조정정보를 내부 협력채널을 통해 2차 협력사에게도 공개하는 것 등이 있다.

에스원, 준법경영 선포

전사 조직내 90여명의 준법 책임자 및 담당자 선임

삼성그룹계열사인 첨단보안회사 에스원은 5월 3일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업무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준법경영선포식을 개최했다.

서준희 에스원 사장은 이날 서울 순화동 본사에서 가진 행사에서 “준법은 앞으로 회사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며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수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서 사장은 특히 “21세기 기업 환경에 있어 불공정거래, 부패 등의 위법행위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면서 “이는 고객의 안전과 안심을 책임지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사업부장 및 임원들은 △공정거래법규를 포함한 업무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며 △경쟁사와 의심을 살 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와 금품, 향응과 같은 불법 수수행위를 하지 않으며 △법규 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등을 골자로 한 준법경영 서약서를 작성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전사 조직 내에 90여 명의 준법 책임자 및 담당자를 선임해 둔 상태”라며 “앞으로 이들을 통해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1~4차 협력사 953개 기업과 동반성장 협약

국내 최초로 2차 협력기업까지 CP 확대



포스코가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포스코만의 차별화된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 강화한다.

포스코는 4월 27일 포스코센터에서 1~4차 협력기업 953개사와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포스코와 1차 협력기업 간에 시행하던 기존 CP(Compliance Program)를 국내기업 최초로 출자사 차원에서 1차와 2차 협력기업으로 확대하는 선포식도 가졌다.

포스코는 이미 2002년부터 CP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번 선포를 통해 포스코와 출자사는 물론 1차와 2차 협력기업에 이르기까지 더욱 넓은 범위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포스코와 포스코건설·포스코특수강·포스코파워 등 12개 출자사는 1차 협력기업 637개사와 협약을 맺고, 1차 협력기업은 다시 2~4차 협력기업 316개사와 협약을 맺는 등 모두 953개사가 협약을 맺어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포스코는 올해에도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장비·설비 투자자금 지원,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확대, 벤처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포스코패밀리만의 차별화된 동반성장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준양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포스코가 좋은 기업, 존경받는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임직원에게 당부 드리고 있다”면서 “동반성장 활동이 ‘사랑받는 기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포스코패밀리 전체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12개 출자사 대표, 1~4차 협력중소기업 대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마친 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방안’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방안’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콘퍼런스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전문가 강연과 패널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두산중공업, 협력사 200곳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경쟁력강화지원단 구성·설비와 운영자금 등 총 1000억원 지원

두산중공업은 협력회사 200개사를 장기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強小)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각종 지원을 해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4월 27일 오후 경남 창원공장에서 박용현 두산 회장, 한기선 두산중공업 운영총괄 사장(COO)와 200개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협의체인 ‘두산중공업 협력회’ 창립총회를 열고, 앞으로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품질 보증, 생산성 향상, 설계 개선 등 사내외 전문가 72명으로 구성된 협력사 경쟁력강화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협력사별로 정밀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 중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원자력부품 업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인증 취득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업체를 통해 원가절감 등 경영혁신 기법을 전수해 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또 이들 업체에 대해 △ 현금결제 비율과 무상자금지원 확대, 상생펀드 조성, 신용보증사업 참여 등 협력사 자금지원 확대 △ 발주물량 예고제 실시 △ 신기술 공동개발과 국산화 등 기술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해외현장 견학 등 글로벌 마인드 제고 등 전방위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두산중공업은 이 같은 동반성장을 위해 2014년까지 총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두산엔진,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수상

품질혁신활동 지원받은 협력사들도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각각 수상

두산엔진이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가장 잘 실천한 대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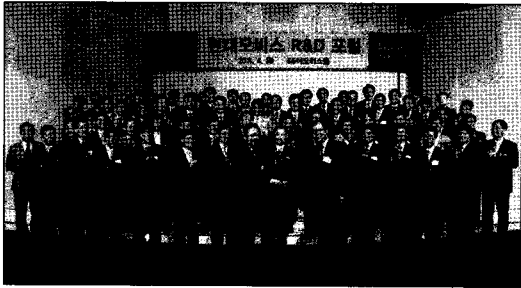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청이 4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2011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에서 두산엔진은 최우수 모기업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협력사의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싱글 PPM 운동을 적극 지원, 지난해까지 국내 협력사 중 97개사가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은 것.

두산엔진은 엔진 생산기술의 전문화·분업화되는 특성에 의해 협력업체의 품질 경쟁력이 모기업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 협력사와 탄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구축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왔다. 두산엔진이 고객사로부터 고객선호도 1위를 얻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러한 꾸준한 품질혁신활동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음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성희 사장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완벽한 품질 확보가 필수적이며, 협력사의 품질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모비스, “2·3차 협력사, 우리 함께 갑시다”

1차 우수협력사 노하우 2·3차 협력사에 전수·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



현대모비스가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을 1차 협력사에서 2·3차 협력사로 넓혀가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우수협력사 벤치마킹’과 세미나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업무능력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에 집중하고 있다.

‘벤치마킹’은 현대모비스의 우수 1차 협력사 사

업장에 2·3차 협력사 직원을 초청, 현장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창원과 인천에서 총 95개사 125명의 협력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창원 ‘디엠테크’에서 열린 ‘벤치마킹’에는 가공 업종 관련 협력사 49개사가 참가했고, 인천 ‘성진피엔티’에는 프레스 업종 관련 46개사가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 29일과 5월 3일에서 열린 2차 협력사 세미나에는 총 360개사의 협력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 현대모비스가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프로그램과 구매·품질·R&D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윈-윈 하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또한 EU 및 미국 등과의 FTA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2차 협력사들의 FTA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2차 협력사의 품질수준이 완성차 품질경쟁력에 직결됨을 강조하고 품질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모비스 구매본부의 김순화 부사장은 “자금 지원은 물론 2·3차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협력사들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과 품질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사와 함께 기술 전시회를 개최하여 협력사들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지난해부터 협력사에 자금 지원, R&D 협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우수협력사 포상, 소통 프로그램 강화, 윤리준수 경영, 성과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7가지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대차 그룹 차원의 동반성장 협약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하이트진로, 통합 후 '글로벌 종합주류기업' 도약

2015년 수출 2억 달러, 글로벌 사업규모 8000억원 목표

하이트진로 그룹이 2015년 글로벌 종합주류기업 도약을 선언했다.

하이트진로 그룹은 통합법인 출범 후 2015년까지 해외수출 규모 2억 달러, 해외법인 매출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규모 8,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2010년 해외수출은 1억 528만 달러, 글로벌 사업규모는 4,352억 원으로 향후 5년 동안 2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9월 1일 통합 법인인 '하이트진로주식회사' (가칭)로 새롭게 출범해 매출 증대를 통한 외형 성장과 더불어 재무구조 개선 등 내실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2010년 매출액 합계는 1조 7,279억 원(하이트맥주 1조 223억 원, 진로 7,056억 원)이다. 통합법인 하이트진로는 2014년 매출 2조 2,049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매출 2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영업이익도 2010년 2,259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876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그룹은 외형 확대와 함께 내실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통합을 통한 매출원가 및 마케팅 비용 절감, ERP 시스템 정착으로 인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통합 후 일반경비 절감 등 비용 효율화로 인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희자산 매각과 영업수익금을 재원으로 2014년까지 5,000억 원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글로벌 행보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2007년 양사의 해외사업부문을 통합해 해외사업본부를 출범시킨 후 글로벌 사업규모가 연평균 17.4%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수출 국가는 16개국에 늘었고 수출브랜드는 43개 품목이 증가해, 현재는 총 56개국에 74개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일본, 미국 등에 막걸리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판매량이 목표 대비 7배를 넘어서며 해외수출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3월에는 막걸리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막걸리업체 '설악양조'를 인수했다.

하이트진로는 통합법인 출범 후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통합법인은 국내에서의 외형 확대와 내실경영을 통해 마련된 자원을 활용해 수출 확대, 해외기업과의 제휴, 현지 기업 인수 등 다양하고 더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 2015년 해외수출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그룹 관계자는 "합병을 통한 내실경영과 글로벌 기업으로서 외형 성장이라는 상승효과로 통합법인 하이트진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종합주류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SK텔레콤, '동반성장 3대 실천다짐' 천명

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활동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5월 2일 협력사인 콘텔라 분당 본사를 방문해 콘텔라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3대 실천다짐'을 발표했다.

하성민 사장은 “△협력사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먼저 공유하는 적극적인 소통 실천 △ 솔선수범의 자세로 개방과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조성 △ 스피드, 실행력, 응집력을 갖춘 글로벌 TOP 수준의 에

코시스템 구현이라는 ‘동반성장 3대 실천다짐’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조인자(Coach)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사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지속적인 동반성장 의지를 다졌다.

이로써 SK텔레콤은 360개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완료했다.

하성민 사장은 이날 함께 참석한 2차 협력사인 케이벨 임직원들에게도 앞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1차 협력사 중심으로 운영하던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동반성장 펀드, 경영 생산성 제고 프로그램 등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고,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지원에 적극 동참할 때 가산점 부여, 구매 우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반성장 문화가 폭넓게 조성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성민 사장은 “대기업과 협력사간 동반성장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확보”라고 하면서 “사업 파트너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동반성장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 개최

연구개발비 및 금형비 일시불 지급 등 약 1013억원 지원



한국지엠주식회사가 '한국지엠과 협력사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 을 개최했다.

5월 4일 한국지엠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열린 이번 선포식에는 GMIO(GM 해외사업부문) 구매담당 자니 살다나(Johnny Saldanha) 부사장과 한국지엠 마이크 아카몬(Mike Arcamone) 사장 등 한국지엠 임직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김성하 국장, 인천광역시 홍준호 경

제수도추진 본부장,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신달석 이사장, 한국지엠 협신회 최범영 회장 등 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1차 협력업체인 309개 협력업체들과 협약을 맺었고, 1차 협력업체들은 다시 2차 협력업체들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동반성장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전담 부서 및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협력업체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금형비 일시불 지급 등 약 1,013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한국지엠은 원자재의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원자재를 구입해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사급 제도' 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협력업체 제안을 통한 워크숍을 개최해 성과 공유도 실시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100% 현금 결제 유지도 이번 협약 내용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은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업체 직능별 인력 양성 교육 실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교육 및 지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주식회사 이마트 출범

‘고객 · 브랜드 · 디자인’ 중심 ‘이마트 Way’가 경영 핵심가치



(주)신세계 이마트부문에서 독립, 새 법인으로 태어난 이마트가 ‘이마트 Way’라는 경영 핵심가치를 내세우며 글로벌 종합 유통기업 도약을 선언했다.

이마트(대표 정용진 부회장, 최병렬 대표)는 5월 3일 정용진 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프레시 이마트’ (Fresh EMART)라는 주제로 법인신설 기념행사를 갖고, 1993년 11월 1호점 창동점을 오픈한 이후 18년 만에 모기업으로부터 독립, 새로운 이마트호의 첫발을 내딛었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이마트를 국내 1위 할인점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종합유통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이마트 미래 비전’, 이의 실현을 위한 ‘이마트 Way’, ‘이마트 인재상’, ‘새로운 CI’ 등을 발표했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은 주식회사 이마트가 기존의 이마트와 다른 존재의 의미를 가진 새로운 기업임을 분명히 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독립 및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통해 각자 영역에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세계라는 하나의 상자를 신세계와 이마트라는 각각의 상자로 나누었다”며 “이마트로서는 과거 18년이 국내 할인점 1등으로의 도전이었다면, 향후 10년은 할인점을 넘어 세계적인 톱(Top) 글로벌 종합유통회사로 성공하기 위한 도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 해외시장으로의 영토 확대 등 신시장 개척 △ 상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차별화 △ 채널간 시너지를 통한 유통 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를 핵심 역량으로 선정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용진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이마트인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를 담은 ‘이마트 Way’를 제시,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을 요청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인 모두가 가져야 할 우리만의 철학이자 정신은 첫째 고객마인드, 둘째 브랜드 차별화, 셋째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이라고 밝혔다.

이마트 Way의 고객은 고객중심적 마인드로서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며 느껴야 하는 대상이다. 단순한 가격 차별화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따라 잡힐 수 없기 때문에 브랜드의 경우는 근본적인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디자인은 고객중심의 창조적인 사고이자 공통언어로서 기업이 숨쉬고 행동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한편, 이마트는 글로벌 종합유통기업에 걸맞은 새로운 기업 이미지(CI)를 선보였다. 새로운 CI의 핵심은 고객 브랜드 디자인 등 3가지 경영 핵심가치를 토대로 하는 ‘소프트(Soft)’와 ‘프레시(Fresh)’이다. 이는 이마트가 보다 유연해지고, 보다 부드러워지는 것은 물론 주요 고객인 여성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 ‘섬기는 리더’로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이미지는 한층 젊게 만들어 국내 최고의 유통 브랜드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CR센터 '지적재산권 라이선싱의 법적 규제' 기획 세미나 시리즈 진행

6월 10일, 4번째 세미나 개최 예정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 소장 유진희)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싱의 법적 규제' 라는 제목의 기획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8일과 5월 2일에는 'IT산업에서 IPR Licensing의 제 문제' (제2회)와 '계약산업에서 IPR Licensing의 제 문제' (제3회)라는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이어 4월의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IT 산업 분야의 이슈 중 Standard Setting, FRAND 조건, Cross Licensing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부의 첫 번째 발표자였던 미국 FTC의 올덴 애보트(Alden Abbott) 서기관은 'Standard Setting Enforcement Under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라는 주제로 표준 설정과정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권국현 변호사는 '표준 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 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표준화 기구의 기만행위에 대해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Compass LexEcon의 앤 레인(Anne Layne) 박사는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 Theory and EC Application' 라는 주제로 FRAND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소개하면서 FRAND 위반에 대한 경쟁법의 개입보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 최선임을 주장했다.

2부에서는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표준화 기구와 특허풀의 관련 문제' 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자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서기관은 '공정거래법과 FRAND 조건'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표준 설정과정에서 특허매복행위 및 FRAND 조건 위반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시간에서는 정부기관, 학계 및 실무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관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4월에 개정된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이 IT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많은 토론자들이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지식재산권의 목적과 IT 분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표준 설정과정에서의 공개의무와 FRAND 조건에 대해 경쟁법상 과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ICR센터의 이번 기획세미나는, 6월 1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역삼동 한국 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각국 경쟁당국의 IPR Licensing 가이드라인의 비교 및 종합정리' 라는 주제로 4번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